



고비 / *Osmunda japonica* Thunb.

| 구분 | 설명 |
|------|-----|
| 생물분류 | 식물 |
| 속국명 | 고비속 |
| 과국명 | 고비과 |

| | |
|-------------|--|
| <p>과명</p> | <p>Osmundaceae</p> |
| <p>일반특징</p> | <p>요약설명 : 고비과 속근성 여러해살이풀로 중국, 월남, 인도, 일본 등지에 분포하며 우리나라의 제주도와 울릉도, 남부 중부의 산지, 습한 곳으로 그늘이 진 주변에 자생한다.</p> <p>분포지역 : ▶한국, 중국, 월남, 인도, 일본 등지에 분포▶제주도와 울릉도, 남부 중부의 산지, 습한 곳으로 그늘이 진 주변에 자생</p> <p>형태 : 속근성 여러해살이풀로 관엽식물이다.</p> <p>크기 : 높이가 60~100cm 정도이다.</p> <p>꽃색 : 백색</p> <p>개화기 : 8월,9월</p> <p>반그늘에서 자라며 습지에서는 빛이 있는 곳에서도 잘 자란다.</p> <p>줄기는 뿌리줄기에서 여러 대가 나와 자란다. 주먹 같은 뿌리줄기가 있으며 많은 잔뿌리가 있다.</p> <p>잎은 영양잎과 포자잎으로 구별되고 어릴 때는 붉은빛이 도는 갈색의 솜털로 덮여 있으나 커지면서 곧 없어진다. 잎은 녹색으로 이회깃모양겹잎이고 깃조각은 첫째 것이 가장 길다. 다 자란 잎은 광택이 나고 털이 없으며 날개깃모양으로 맥이 2개씩 갈라져 있다. 포자잎은 일찍 자라서 일찍 시들고 포자잎의 잔깃조각은 줄 모양으로 되어 포자낭이 뺨뺨이 달린다. 여름철에 영양잎의 일부가 포자잎으로 변하는 것도 간혹 있으나 일정하지는 않다.</p> |